“후대에게 깨끗한 무등산 물려줘야죠”

17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성료

본보 주최 300여명 참여 성황
코로나 여파로 4년만에 개최
문빈정사서 중머리재까지 6㎞
등산로 쓰레기 주우며 구슬땀

제17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17일 광주 동구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에서 출발에 앞서 무등산 보호에 앞장 설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초록 빛으로 우거진 무등산 초여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지역민들과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남일보사가 주최하고 (사)전일엔컬스가 주관하는 ‘제17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가 지난 17일 오전 3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동구 무등산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광주시청, 전남도청, 광주시교육청, 화순군청, 담양군청이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한동안 코로나 19 여파로 열리지 못하다가 무려 4년만에 개최됐다.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을 대신해 개회선언을 한 문병익 경영본부장은 “오랫동안 우리 삶을 옥죄던 코로나19 사태가 서서히 종식되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의 단계로 향해가고 있다”며 “무등산은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이고 6번째로 인증된 국가지질공원으로 명실상부한 광주의 명산이며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초여름 무등산의 정취를 만끽하고 광주와 전남의 얼굴이면서 정신인 무등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등반대회는 문빈정사에서 출발해 중머리재를 거쳐 서석대까지 총 6㎞ 구간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준비운동을 하고 ‘무등산을 사랑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족·동료·연인의 손을 잡고 현장을 찾은 참가자들은 무등산의 아름다운 정취 속에서 힐링의 한때를 보냈다. 또 가족단위 참여객들은 이야기 꽃을 피우는 등 산행 내내 정겨운 모습을 연출했다.

또 무등산 등산로 곳곳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정화활동에도 앞장섰다. 양손에 집게와 쓰레기를 담을 마대자루를 든 자원봉사자들은 무등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곳곳을 누볐다.

40여년간 무등산 지킴이를 자처한 박유곤(78)씨는 “광주의 대표 산인 무등산을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돌봤으면 좋겠다”며 “등산객은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를 꼭 다시 가져가고, 시간이 되면 주변에 보이는 쓰레기들도 주워가길 바란다. 후대에게 깨끗한 무등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멀리 순천에서 무등산 정화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이들도 있다. 8명의 회사 동료와 함께 왔다는 김대천(48)씨는 “순천에서 설비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산을 좋아해 회사 동료들과 등산 동호회를 만들어 주말마다 등반하고 있다”며 “의미있는 산행을 찾던 중 무등산 정화활동이 있어서 참가하게 됐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산을 아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이재동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처장은 “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며 “꼭 내가 버리지 않았더라도 등산객 모두가 쓰레기가 보이면 바로 회수해 무등산을 깨끗하게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은 지난 2012년 12월27일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2014년 12월10일에는 국내 6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무등산은 전국에서 연간 400여만 명의 등산객이 찾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전두복 아닌 사복으로…’ 특전사동지회, 민주묘지 참배

시민사회 “개별 참배 안막는다”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특전사회) 일부 회원이 아마빌레 윈드 오케스트라단 단원들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을 참배했다.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 등 회원 4명과 오케스트라 단원 8명은 지난 17일 오후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분향했다. 여기에는 항쟁 최초 희생자인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도 동행했다.

이들은 고 김경철 열사의 묘역과 행방불명자 묘역을 차례로 방문해 영령들의 넋을 추모했다. 방명록에는 “님들의 희생으로 민주화 꽃이 피었습니다. 편히 잠드소서”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임 고문은 “오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공연을 펼칠 오케스트라단 단원들과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항쟁 정신을 되새겨보고자 민주묘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물리적으로 막지 않아 충돌 없이 25분만에 끝났다.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특전사회의 개별 참배까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만적인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폐기하고 사죄해야 하며, 실체적 증언으로 5·18진상규명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전사동지회 5·18민주묘지 참배는 올해 2월 19일과 6월 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정성현 기자

1980년 5·18시위 주도 혐의, 43년만에 ‘무죄’

회보 펴낸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
계엄법 위반, 집행유예 3년 선고
“헌법 존립·질서 수호 정당 행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시민회보를 펴낸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이 43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 A(64)씨와 B(67)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대 국문과 4학년 재학 중이던 A씨는 1980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5·18민주화 운동 궐기대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 폭력적인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선포하자 민주주의를 위해 집회에 나섰다가 붙잡혔다.

B씨도 1980년 10월 헌법 개정안 반대 인쇄물을 제작해 광주 도심에 배포했다.

B씨는 ‘우리가 국민 투표하는 것은 전두환 반민족 독재정권을 방조한 것’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약 400매 제작해 유포했다.

A씨와 B씨는 계엄법·국민투표법 위반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검은 A씨와 B씨의 판결이 5·18특별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이 집회에서 외친 구호 등을 감안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동기와 목적에서 집회에 참가했고, 전두환 등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에게만 대항해 집회를 주도했을 뿐 다른 폭력적인 행위나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全南日報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합 병 공 고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연화건설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선혜건설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서는 2023년 6월 16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 키로 결의하고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서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이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기 바라며, 각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내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9일

(갑) 연화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119
사내이사 박송자
☎ 062)676-1570
(을) 선혜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119
사내이사 방 성 권
☎ 062)676-1435

채권 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3. 6. 13. 총사원동의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3. 8. 12.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6월 13일

유한회사 수목사랑
청산인 노 식

위와 같이 2023년 6월 19일자 전남일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였음.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심판

사건번호 2023느단117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김승식(510907-1******)
최후주소 목포시 교육로 86, 503호(상동, 21세기그린오피스텔)

위 망 김승식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6월 19일

공 고 인 : 강복순, 김준민, 김경호
한정승인 수리일 : 2023년 6월 14일
공고기간 : 2023. 6. 19. ~ 2023. 8. 18.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심판

사건번호 2023느단557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 망 자 박재홍(640401-1******)
최후주소 광주 남구 대남대로 249-1 (백운동)

위 망 박재홍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6월 19일

공 고 인 : 김승자
한정승인 수리일 : 2023년 6월 13일
공고기간 : 2023. 6. 19. ~ 2023. 8. 18.